전남대 총장직선 폐지 논의 급물살

총동창회, 12인 참여 '비상협의체' 제안

교과부 대학평가 불이익 회피 방안 모색

총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로 촉발된 전남대의 위기 타개를 위해 총동창회가 비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대 총동창회는 17일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을 김윤수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평의원회에 전달, 즉시 논의해주기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실천 상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긴박한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현 실정의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모교와 총동창회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학 집행부와 평의원회, 동창회 각 4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대는 김윤수 현 총장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뽑더라도 일정 기간 '총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8~9월 학생 모집과 학교 운영 등 대학 위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과 구조개혁 대상 대학 선정 사업이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이 사업들은 직선제 폐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아직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전남대로서는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항에서 총동창회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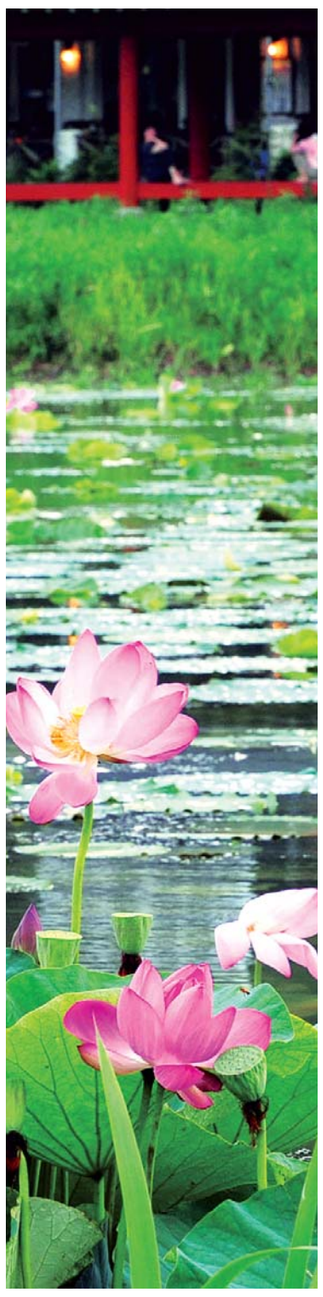
전남대는 총장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창수 총장 당선자(1순위)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된 듯 했으나 다시 이병택(2순위 당선자) 후보 진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선자(1·2순위)들을 교과부에 총장 임용을 추천한 대학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교과부가 두 후보들에 대한 처리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총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 조차 애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장 선출 문제가 검찰수사로 장기화될 경우,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 정리도 없이 교과부의 불리한 평가를 받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남대의 한 교수는 "총동창회와 대학이 힘을 모아 검찰의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면서 "지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새 총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해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연꽃의 고운 자태

장맛비가 내린 17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전평저수지에 활짝 핀 연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서구는 4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를 오는 11월까지 전평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첫 '총장 공모제' 광주교대 후보 접수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처음으로 공모제 총장 선출에 나선 광주교육대학교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후보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가능하고, 광주교대 교수 5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모지원은 신청서를 비롯해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 추천장, 자기소개서, 최종 학위증명서, 서약서, 그리고 발전계획서 등을 준비해 선정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교대는 다음달 9일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서면과 심층면접을 거쳐 3명을 선발한 후, 투표를 통해 1·2위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정인수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장은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며 "89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교대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종합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23일부터 학교를 이끌어온 박남기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2일 끝나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10월23일부터 시작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4개 코스로

내비로 주행경로 안내받고 태블릿 채점도

오는 11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코스 종류가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특히 태블릿 PC가 일부 항목을 전자채점하며, 응시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행 경로를 안내받는다.

17일 경찰청이 공개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에게 이 같이 새로운 방식의 시험이 적용된다.

시험관이 주행시험 직전 채점용 태블릿 PC의 노선선택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된 4개 노선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며 응시자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노선의 전체 경로를 확인하고 출발한다.

지금은 시험장별로 2개 정도의 노선만 실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해당 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지만 노선이 4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응시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태블릿 PC의 내비게이션이 노선의 경로를 음성으로 안내해주게 돼 시험관 별 편차는 줄어들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비노선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을 확보하고 이중 4개를 태블릿 PC에 입력, 시험 시행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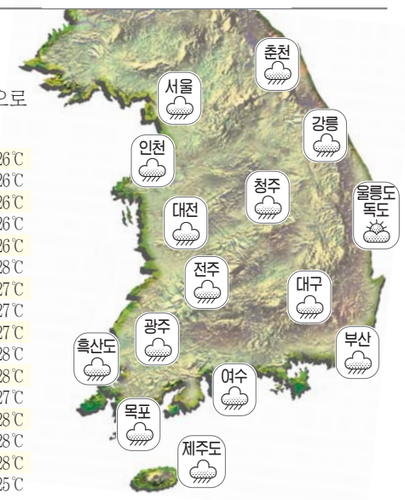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1분 해짐 19시 46분 달뜸 04시 31분 달짐 18시 54분

태풍 피해 주의

제7호 태풍 카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비	24/26℃
목 포	흐리고비	23/26℃
여 수	흐리고비	24/26℃
나 주	흐리고비	24/26℃
완 도	흐리고비	23/26℃
구 례	흐리고비	24/28℃
강 진	흐리고비	24/27℃
해 남	흐리고비	24/27℃
장 흥	흐리고비	24/27℃
순 천	흐리고비	24/28℃
영 광	흐리고비	24/28℃
진 도	흐리고비	24/27℃
전 주	흐리고비	24/28℃
군 산	흐리고비	23/28℃
남 원	흐리고비	24/28℃
흑산도	흐리고비	22/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동~남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4.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매우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먼바다	북동~동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3.0~5.0m
먼바다	북동~동	4.0~6.0m

	밀물	썰물
목포	01:46 13:33	07:12 19:01
여수	08:25 21:02	02:33 14: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최저/최고	23/27	23/28	23/28	23/30	23/31	23/32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초·중생…27일까지 접수

광주시 남구가 오는 27일까지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이 위탁운영하는 이번 캠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남구 주월동 장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구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이다.

미국 대학교 재학 원어민 등 30명의 교사가 ▲영어로 말하고 듣기 ▲미국 내 교재를 활용한 문장이해 및 언어체험 ▲영어일기 ▲연극·합창 등 공연예술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명사특강, 퀴즈 영어 대회, 밴드 공연 등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신청은 (사)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영어캠프본부(062-714-3131)로 하면 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